

현대사의 이해

무슨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빈 가지에 바구니만 매여두고 내 少女, 어디 갔느냐 -吳一島

서정주

아조 할수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한다

이제는 다시 도라올수없는 옛날의 모습들. 안개와같이 스러진 것들의 형상을 불러 이른다.

귀스가에 와서 아스라이 속삭이고는, 스쳐가는 소리들. 머언 유명(幽明)에서처럼 그소리는 들려오는 것이나, 한마디도 그 뜻을 알수는 없다.

다만 느끼는건 너희들의 숨소리. 소녀여, 어디에들 안재(安在)하는지. 너희들의 호흡의 훈집으로써 다시금 돌아오는 내 靑春을 느낄따름인것이다.

소녀여 뭐라고 내게 말하였든 것인가?

오히려 처음과같은 하늘우에선 한마리의 종다리가 가느다란 피스줄을 그리며 구름에 무쳐 흐를뿐, 오늘도 굳이 다친 내전정(前程)의석문앞에서 마음대로는 처리할수없는 내생명의환희를 이해할따름인 것이다.

섭섭이와 서운니와 푸접이와 순네라하는 네명(名)의 소녀의 뒤를 따라서, 오후의 산그리메가 밝히
우는 보리밭새이 언덕길우에 나는 서서 있었다. 붉고 푸르고, 흰, 전설속의 네개의 바다와 같이 네
소녀는 네빛갈의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하늘 위에선 아득한 고동소리.순네가 아르켜준 상제님의 고동소리.네명(名)의 소녀는 제
마닥 한개 ㅅ식의 바구니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차라리 무슨 나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
고 있는 것이었다. 썩나물이나 머슴둘레, 그런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언 머언 고동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있는 것이었다. 후회와 같은 표정으로 머리를 숙으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잡히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발자취소리를 아조 숨기고 가도, 나에게는 붓잡히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담담히도 오래가는 내음새를 풍기우며, 머슴둘레 꽃포기가 발길에 채일뿐, 쌍긋한 찢레 덩풀이
앞을 가리울뿐 나보단은 더빨리 다라나는 것이었다. 나의 부르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멀리 더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다.

여긴 오지 마 여긴 오지 마.....

애살포오시 웃음 지우며, 수류(水流)와 같이 네개의 수류와 같이 차라리 흘러가는것이였다.

한줄기의 추억과 치여든 나의 두 손, 역시 하늘에는 종다리새 한마리, - 이런것만 남기고는 조용히 흘러가며 속삭이는것이였다. 여긴 오지마.....여긴 오지 마.....

소녀여, 내가 가는날은 도라 오련가. 내가 아조 가는 날은 도라 오련가 막달라의 마리아처럼 두눈에는 반가운 눈물로 어리여서, 머리털로 내 손끝을 스치이련가.

*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찔려 앞어힐때는, 네명(名)의 소녀는 내곁에 와 서는 것이였다. 내가 찔려
스가시나 새금팔에 베혀 앞어힐때는, 어머니와같은 손가락으로 나를 나시우러 오는것이였다.

손가락 끝에 나의 어린 피스방울을 적시우며, 한명(名)의 소녀가 걱정을 하면 세명(名)의 소녀도 걱정을 하며, 그 노오란 꽃송이로 문지르고는, 하얀 꽃송이로 문지르고는, 빠얍한 꽃송이로 문지르고는 하던 나의 상(傷)처기는 어쩌면 그리도 잘 낫는 것이었든가.

정해 정해 정도령아
원이 왔다 문열어라.
붉은꽃을 문지르면
붉은피가 도라오고.
푸른꽃을 문지르면
푸른숨이 도라오고.

소녀여. 비가 개인날은 하늘이 왜 이리도 푸른가. 어데서 쉬는 숨소리기에 이리도 똑똑히 들리이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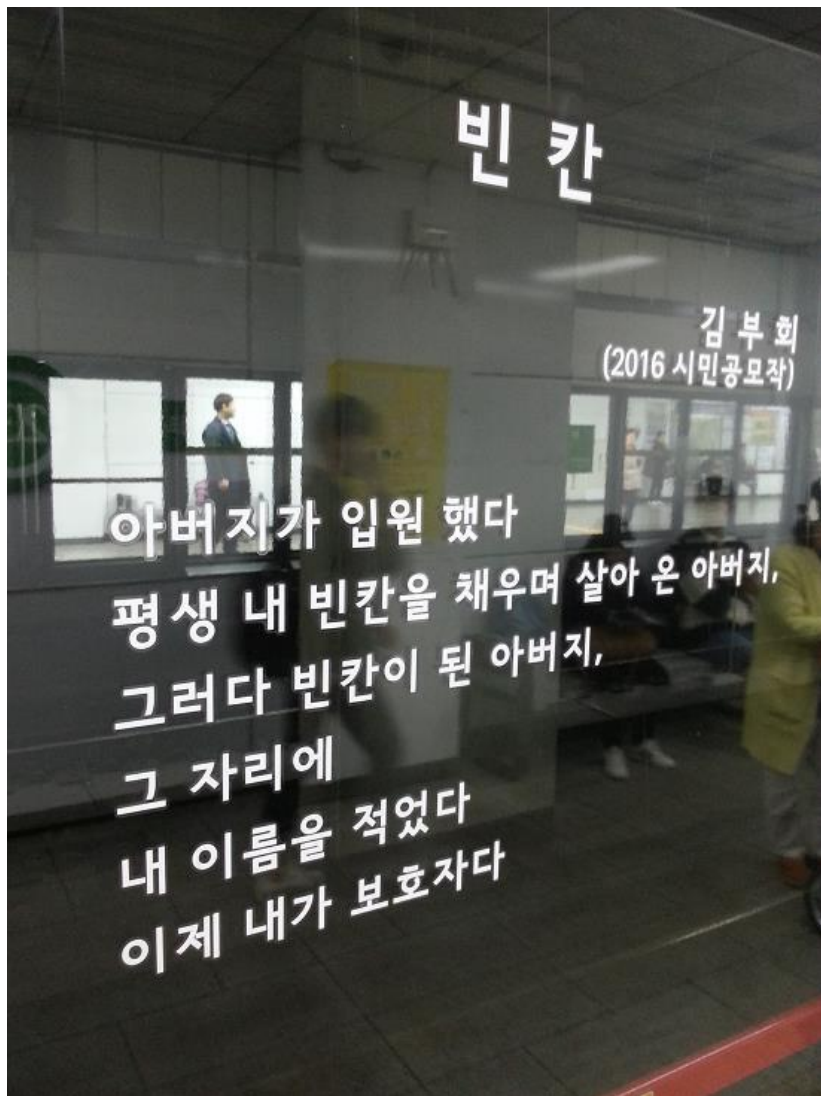
몇 포기의 씨겨운 머둘레꽃이 피여있는 낭떠리지 아래 풀밭에 서서, 나는 단하나의 정령이 되어 내소녀들을 불러 이르킨다.

그들은 역시 나를 지키고 있었든것이다. 내속에 네리는 비가 개이기만, 다시 그 언덕길우에 도라오기만, 어서 병이 낫기만을, 그옛날의 보리밭길 우에서 언제나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든 것이다.

내가 아조 가는날은 도라 오련가?



시 그리고
시적인 것



I. SEOUL.U 서울특별시

20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민창작 詩 공모전
세상에서 가장 큰 시집, 지하철에서 나는 행복을 만나다!

공모 기간	2019년 6월 17일(수) 09:00 ~ 7월 20일(토) 18:00 / 5주
응모 분야	당역시 1인당 1편
공모 주제	당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명판 옆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 안전을 줄 수 500 내음 ▶ 서울을 주제로 한 내용
공모 형식	A4 용지 1매(150mm×105mm) 1인당 1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과 내용을 제한(내용: 150자 이내, 연과 연사(시)를 포함할 수 없음) ▶ 형은 글자(이)에 따라 100자 이내로 제한(100자, 150자, 200자 등 지정은 없다)
참수 방법	내 손으로 서울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민참여 > 공모전 참여 후 '20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민창작 詩 공모전' 게시글 작성 공모전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하여 응모할 경우 ✓ 무관할 수 및 안전장수는 불가(의사) 형태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	당역시 2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받은 2019년 8월 30일(수)까지 서울에 있는 역
문의처	공모전事務局 02-1256-0000



천연염색 자연염색공방 2020.11.15.

천연염색체험

이름이 시적이네요 고은매공방도 운심리에 있다는~~ㅎ 힘드신 어르신 분들은 구경하시고 적극적으로 염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천연염색체험에 관심은 아주 ...

#천연염색체험 #에코염색체험 #감물염색체험 #개인단체천연염색체험



13

june 인플루언서 2020.11.05.

하비니콜스 22% 할인코드! 그리고 저 뷰티 박스 받았어요! 영영

돈 이븐 핑커바웃 중의적이네요 시적이네요 시적이야 하비니콜스의 유머도 알수 있는 기프트 박스 입니다여... 하비니콜스에서 이번에 나온 할인코드는 꽤 큰거에...



31

내일은 뭐하지? 2일 전

2021.01.13 제주여행 풍미독서 . 시적인커피 .이하등등

근처에 보여서 들어간 시적인 커피 . 큰 고민 안하고 들어간 곳인데 . 생긴지 얼마 안된 곳인지 혹은 핫한 곳인지... 사람들이 사진찍으러 엄청 오더라 . 건물이 뭔가 엄...



42

법무법인 해마루 2020.11.04.

[서초동 점심 5]서초동 계림닭도리탕

메뉴판도 시적이네요^^ 닭도리탕 구경해 보시죠 4명이 가서 3인분 시켰습니다. 양이 넉넉합니다^^ 참고로 닭도리탕 안에 떡볶이 떡이 기본으로 들어 있는데, 양이...

#서초동 #계림닭도리탕 #교대역 #볶음밥 #떡볶이 #트럼프



10

Claire ; ou la vie artistique et sophistiqué 2020.10.24.

우향 박래현 그리고 젊은 예술가

울프나 우향이 겪어야만 했던 여성으로서 편견이나 부당함은 없겠지요? 젊은이의 예술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을 샀습니다. 제목을 써달라고 ...

#우향박래현 #윤보김기창 #청각장애인 #석조전 #동판화 #뉴욕유학



12

시적 자질이라 기대되는 것들

시적인 상상력

서정성

주관성

리듬

상징

비유

이미지

닭과...

<닭도리탕>

마늘 닭도리탕

소 한마리 23,000원 (2인)

중 한마리반 34,000원 (3인)

대 두마리 44,000원 (4인)

반마리추가 13,000원

술...그리고

<주류>

소주 4,000원

맥주 4,000원

클라우드 5,000원

청하 5,000원

3,000원

소맥세트 11,000원
(소주1+맥주2)

사람과

<사리>

칼국수 2,000원

떡 2,000원

우동 2,000원

라면 2,000원

감자 2,000원

볶음밥 2,000원

음식에 취하다

<음료>

콜라 2,000원

사이다 2,000원

닭:국내산 마늘:국내산
쌀:국내산 깍두기: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중국산

— MENU —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오규원, <프란츠 카프카>

서정의 본질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

세계의 자아화



회감의 작용에 따른 주체와 객체의 단절이 없는 세계와
자아의 조화

근원 회귀 혹은 마법성의 복원



물울타리를 돌렸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함민복, <섬>

'서다' 라는 동사를
명사화하면 '섬' 이 된다
물에서 멀리 떨어져
마냥 물을 그리는 섬
사람은
혼자서는 그때부터
섬이 되는 것이다

문무학 , <섬>

예비군편성및훈련기피자일제자진신고기간

자: 83. 4. 1. ~ 지: 83. 5. 31.

황지우, <벽1>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의미 정보를 상실했을 때 미적 정보가 발생한다.



시는 행들이 어디서 끝나야 하는지를 인쇄업자나 워드프로세서가 아니라 작가가 결정하는 **허구적**이며 **언어가 창의적인 도덕적 진술**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도덕은 의무와 책임의 옹호론자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풍요롭고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현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도덕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와 경험에 대한 질적이거나 평가적인 견해**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특정 각도**에서 고려되는 인간 경험 전체를 가리킨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림, <갈대>

낯설게 하기 (Ostranenie)



쉬클롭스키는 <기법으로서의 예술>에서, 삶의 감각을 되찾고 사물을 느끼기 위해서, 돌을 돌답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에서 **지각의 자동화를 제거**한다고 했다. '낯설게 하기 (Ostranenie) 기법'은 그에게서 예술의 일반 법칙으로 떠오른다. 그는 시를 **지연되고 뒤틀린 말**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예술 기법은 **사물을 낯설게 하고 형식을 어렵게 하여, 지각을 힘들게 하고(제동)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지연) 기법**이다. 이 제동과 지연을 통해 인식의 갱신이 이루어진다.

내가 신세졌던 이층집의 이 층에서
도무지 내려오지 않는 그를 기다리는 내가 있고, 일본의
주택가에서는 까마귀가 자주 보인다 까마귀는 생각보다
크구나

놀라울 일이 없는데도 나는 놀란다

창이 넓게 트인 거실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희박하고 조용한 생활, 이 층에서도 같은 것이 보일까?
의문은 이 층에서 가로막히고, 거실의 조도는 최대치에
달했다 거실의 공기는 너무 희박해서 숨 쉬는 일도 어려
운 것 같다 사물들이 자꾸 투명해지는데 그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선명하게

대체 저게 뭐지? 갑자기 그가 물어서
저건 까마귀야, 나는 대답했고

까마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놀랍다

황인찬, <거주자>



정해진 길을 고집하지 않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자신의 상념을 쫓는 것보다 매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방 여행을 하면서 곧바로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탁자에서 시작해 방 한 구석에 걸린 그림 쪽으로 갔다가 예들러 문 쪽으로 간다. 거기서 다시 탁자로 돌아올 요량으로 중간에 의자가 있으면 그냥 의자에 주저 앉는다. 의자란 얼마나 유용한 가구인가.

봄, 놀라서 뒷걸음질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슬픔

물에 불은 나무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백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길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진은영,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

길을 잃고 흥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시인은 독백

"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

부러진 피리로 벽을 탕탕 치면서

혁명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

가로등 밑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앞맥의 길

시, 일부러 뜯어본 주소 불명의 아름다운 편지

너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모호성의 가치

- ▶ 윌리엄 эм프슨이 모호성(ambiguity, 애매성)을 시적 가치로 내세웠다.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다의성을 존중해서이다. 과학적, 논리적 언어가 사실이나 대상을 1:1로 가리키는 지시적(외연적) 언어라고 하면 이와 비교할 때 시어는 대체로 한 낱말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느낌과 의미를 환기시키는 **함축적(내포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모호성은 시어가 내장하고 있는 풍요로움에서 발생한다.
- ▶ 모호성은, 시어가 매우 개인적인 언어이며 구체적인 언어라는 데서도 발생한다.
- ▶ 시는 산문에 비해 의미의 전달보다 언어 자체의 뉘앙스와 미감을 존중한다. 의미론적인 소통에 대한 고려는 시에서 부차적일 때가 많다. 의미론적으로, 산문이 명쾌하고 선명하다면 시는 모호하다. **시는 요약될 수 없다.**

얼마나 다행인가

눈에 보이는 별들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별들을 온통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어둠을 뜯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별은 어둠의 망토에 달린 단추
별은 어둠의 거미줄에 맺친 밤이슬
별은 어둠의 상자에 새겨진 문양
별은 어둠의 웅덩이에 떠 있는 이파리
별은 어둠의 노래를 들려주는 입술

별들이 반짝이는 동안에도
눈꺼풀이 깜빡이는 동안에도
어둠의 지느러미는 우리 곁을 스쳐가지만
우리는 어둠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지
뜨거운 어둠은 빠르게
차가운 어둠은 느리게 흘러간다지만
우리는 어둠의 온도와 속도도 느낄 수 없지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달콤한 어둠,
아, 얼마나 다행인가
어둠이 아직 어둠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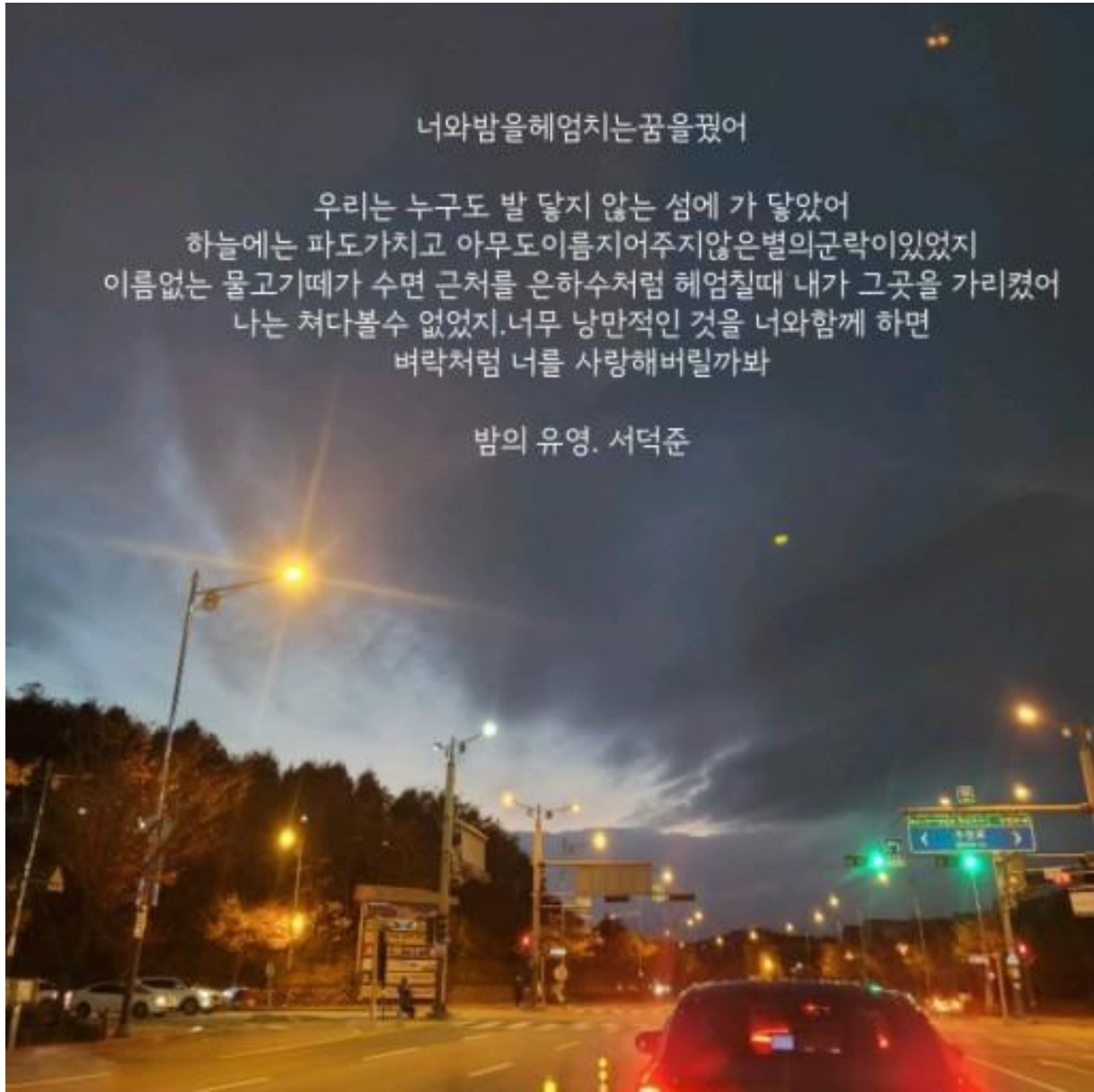
나희덕, <어둠이 아직>

김수영, <시여 침을 뱉어라>

시에 대한 나의 사유가 아직도 명확한 것이 못되고, 그러한 모호성은 무한대의 혼돈에의 접근을 위한 도구로서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했다. (중략) 이 시론은 아직도 시로서의 충격을 못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의 자유의 서술이 자유의 서술로 그치고 자유의 이행을 하지 못한 데에 있다.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중략) 종교적, 정치적, 혹은 지적 일치를 시민에게 강요하지 않는 의미에서, 이 세계가 자유를 보유하는 한 거기에 따르는 혼란은 허용되어야 한다.

나는 한 그루의 거대한 눈알나무, 밤마다 내 몸에서는 사랑스런 남자 대신 눈알들이 자라났다 개중 뼈가 휘도록 탕탕하게 살찐 녀석들은 고무공처럼 이리 튕 저리 튕 튀겨다니더니 나만 모르게 꼭꼭 숨어버리곤 했다 어디 갔을까,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어느 날 맞아 죽은 개의 악다문 입 속에서 말뚱말뚱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눈알 한 개를 찾아냈다 하지만 망치로 개의 이빨을 깨부수는 동안 부풀 대로 부푼 눈알은 오히려 죽은 개를 한입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김민정, <멀리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Instagram

검색



seodeokjun

팔로우

...

게시물 157

팔로워 36.4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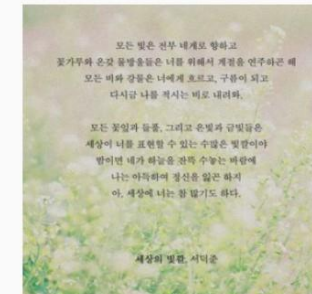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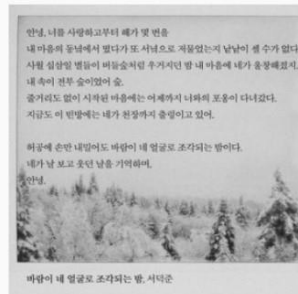
팔로우 0

서덕준

시의 치유력을 줄곧 믿습니다.

게시물

태그됨



새벽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아직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라 말하겠
어 대신 나는 푸른 큰 쓰레기통을 지나며 내음을 맡지 그것들이 퍼르스름
한 대기 속을 엮드려 있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 일컬어지는 형광 조끼
입은 아저씨들이 큰 젓가락으로 그 시체를 후비고 있어 심호흡을 할까 나
는 세기말의 부랑자 걷고 또 걸어도 대답 없는 저 푸른 큰 쓰레기통 왜 도
대체 왜? 새벽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좇도 아니라고 말하겠어 그냥 큰
푸른 쓰레기통을 지나치는 시간이라 말하겠어

성기완, <푸른 큰 쓰레기통의 뜻을 지나며 묻는 새벽>

참고문헌

김수영, 《김수영 전집》, 민음사, 2003.

서정주, 《미당시전집》, 민음사, 1994.

이소호, 《캣콜링》, 민음사, 2018.

진은영,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지성사, 2003.

황인찬, 《구관조 씻기기》, 민음사, 2012.

박진.김행숙, 《문학의 새로운 이해》, 민음사, 2013.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1990.

테리 이글턴, 박령 역, 《시를 어떻게 읽을까》, 경성대학교출판부, 2010.